

취업자는 늘었는데… 전남광주 산업별 고용시장 ‘온도차’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7월 고용시장이 외형적으로는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상승하고 실업률은 하락했지만,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의 고용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시간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았다는 분석이다.

12일 호남지방데이터팀이 발표한 ‘2026년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15세 이상 취업자는 180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1000명(1.2%) 증가했다. 고용률은 64.6%로 전년 동월보다 0.7%p 상승했으며, 생산연령인구인 15~64세 고용률도 69.9%로 1.5%p 올랐다.

실업 지표도 개선됐다. 실업자는 4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12.5%) 감소했고,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보다 0.3%p 낮아졌다. 경제활동인구 역시 185만3000명으로 1만5000명

지난달 취업자 180만8000명…2만1000명 증가 서비스업 중심 상승…제조업·건설업은 감소

(0.8%) 늘었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6.2%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94만5000명으로 1만 3000명(1.3%)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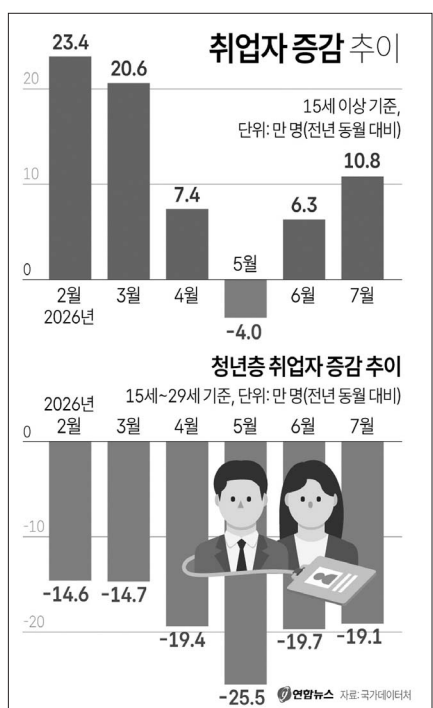
다만 산업별로는 고용 증감이 엇갈렸다.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어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농림어업 등에서는 감소세가 나타났다.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취업자는 74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만3000명(4.6%) 증가했고, 전기·운수·통신·금융업도 18만9000명으로 1만2000명(6.5%)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은 19만 8000명으로 1만명(-4.6%), 제조업은 20만5000명으로 7000명(-3.2%) 각각 감소했다. 건설업도 14만7000명으로 3000명(-1.7%) 줄었으며, 도소매·숙박·음식점

업 역시 32만명으로 4000명(-1.3%)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산업별 온도차가 뚜렷했다. 광주는 전체 취업자가 78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0.8%) 증가하고 고용률도 62.3%로 0.9%p 상승했지만, 제조업 취업자는 9만명으로 1만4000명(-13.3%) 감소했다. 반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은 36만4000명으로 1만5000명(4.3%),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10만3000명(14.4%) 증가했다.

전남의 경우 광주 지역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취업자가 10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1.5%) 늘었고 고용률도 66.5%로 0.5%p 상승했다. 특히 제조업 취업자가 11만5000명으로 7000명(6.6%) 증가하면서 광주와 상반된 흐름을 보였다. 사



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 38만5000명으로 1만8000명(4.9%) 늘었다.

고용의 양적 증가와 함께 눈여겨볼 부분은 취업시간이다. 지난달 36시간 미만 취

업자는 74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8000명(55.9%) 증가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01만5000명으로 26만5000명(-20.7%)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6시간으로 1년 전보다 1.9시간(5.1%)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7만명으로 1만1000명(1.3%)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34만1000명으로 1000명(0.3%) 증가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 8000명으로 3000명(-5.0%)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53만9000명으로 1만 2000명(2.3%)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자영업자가 43만9000명으로 1만2000명(2.8%) 늘었다.

성별로는 여성 고용 개선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여성 취업자는 81만명으로 전년보다 1만4000명(1.7%) 늘어 남성 취업자 증가폭 8000명(0.8%)을 웃돌았다. 고용률도 여성이 57.9%로 1.2%p 상승한 반면 남성은 71.3%로 0.2%p 오르는 데 그쳤다. 다만 여성 실업자는 2만4000명

으로 4000명(21.6%) 증가해 여성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모든 지표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호남지방데이터팀 관계자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취업자와 고용률은 전년 동월보다 개선됐지만 산업별로는 증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며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반면 제조업과 건설업 등에서는 감소한 만큼 향후 산업별 고용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0.1%p 내린 63.3%로 6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1000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p 하락했다. 27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p 올랐다. 이는 2021년 1월(1.8%p) 이후 가장 큰 폭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고금리에 ‘강통대출’ 역대 최대 5대 은행 무수익여신 잔액 6조

주요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충 금리가 오르면 한계 자주가 더 늘면서 은행 건전성도 악화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2분기 말 무수익여신 잔액은 총 6조4108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말(5조65억원)보다 28.0% 증가했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은행의 전체 여신에서 무수익여신이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분기 말 0.34%로, 작년 말(0.27%)보다 0.07%p(%) 올랐다.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2월(0.3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무수익여신은 은행이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거나 원리금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여신

이다. 차주의 부도나 상환 능력 악화로 말 그대로 정상적인 이자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만큼 이른바 ‘강통 대출’로도 불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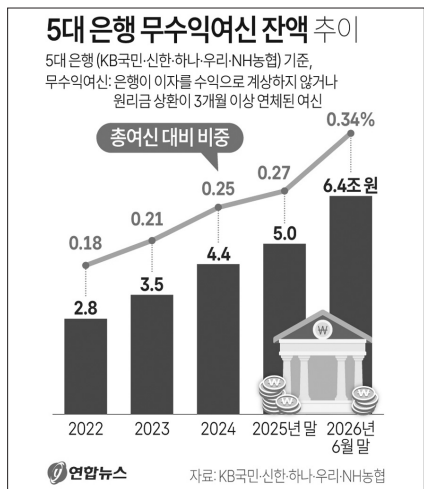
5대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은 2022년 말 2조7902억원, 2023년 말 3조5090억원, 2024년 말 4조3736억원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여신 중 무수익여신 비중도 2022년 말 0.18%, 2023년 말 0.21%, 2024년 말 0.25% 등으로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무수익여신은 가계보다 기업대출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무수익여신 잔액은 작년 말 3조 408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4조6498억원으로 36.4% 급증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중 무수익여신 비중은 0.32%에서 0.42%로 0.10%p 뛰었다.

연행뉴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예산·재정전문가인 안도걸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특별시 재정협의회·미래대응기금 설치 제안”

광주세무사회, 안도걸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광주지방세무사회는 예산·재정전문가인 안도걸 국회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세무사회는 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을 위한 조세·예산 정책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 토론을 통해 광주특별시 재정협의회 설치, 지원금 배분 기준·집행결과 공개, 미래대응기금 설치, 기업과 인재를 모이는 산업 생태계 구축, 소상공인 대상 세무·회계·경영 지원, 식품·바이오·관광·에너지 산업과 연결되는 농어업 전략산업 육성

등을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국가지원금은 소비성 사업보다 지역의 세입기반을 키우는 사업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세무사·재정전문가·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재정협의회를 운영해 지원금 집행 공개 등 주민 신뢰를 확보하고 세수 풍년기에 재원을 적당히 축적해 세수 결손기에 활용하는 ‘미래 대응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도걸 의원은 “예산은 단순한 재정집행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전략이다”며 “광주특별시가 산업·문화·교통이 융합된 미래형 융복합도시가 되도록 자치단체 및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현장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정책과 예산에 충실해 반영해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특별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후 광주세무사회장은 “전남광주의 통합과 상생은 시대적 과제이자 미래 경쟁력의 핵심으로 세무사회도 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지원과 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안심전세 앱’서 확정일자 정보 실시간 확인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 등 간편 확인

임차인들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안심전세 앱에서 여러 기관이 보유한 주택 임대차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부동산원은 HUG에 임차인의 확정일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제공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안심전세 앱을 통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했는지와 연

계 확보됐는지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시점이거나 우선변제권 발생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민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야 했다. 앞으로는 안심전세 앱에서 관련 정보 연계를 확인할 수 있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우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부동산은 모든 국민이 안정적으로 누려야 할 삶의 기반이며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당면 과제”라며 “부동산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으로서 헌법적 가치인 ‘주거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투명하고 안전한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삼도농협 본점 경제사업장에서 소형농기계 전달식을 진행했다.

삼도농협, 소형 농기계 나눔으로 ‘농심 응원’

일손부족 해소·농가소득 증대 기대

농협광주본부는 최근 삼도농협 본점 경제사업장에서 소형농기계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한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와 일손 부족으로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 지원을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현장에는 임문채 조합장과 조합원 및 임직원,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뜻을 모았으며, 교반저탄소 농산물 시장을 선점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삼도농협은 지난 2022년부터 총 500여대의 소형 농기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원대상과 물량을 확대해 조합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임문채 삼도농협 조합장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시름이 깊은 조합원들에게 실제 농작업에 필요한 소형농기계를 전달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삼도농협은 농가소득 증대와 조합원 영농 편의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전남광주, 저탄소 농산물 신규 인증면적 ‘전국 1위’

상반기 2957ha 전국 31% 차지…누적 면적비중 3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신규 인증면적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 지역 저탄소 농산물 신규 인증면적은 2957ha로, 전국 신규 인증면적 9411ha의 31%를 차지했다.

시·군별 신규 인증면적은 해남이 380ha로 가장 많았고 영암 359ha, 순천 194ha, 신안 171ha, 함평 161ha, 나주 111ha 등이 뒤를 이었다.

작물별로는 벼가 2060ha로 전체 신규 인증면적의 약 70%를 차지했다. 이어 고

구마 280ha, 배 190ha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 인증이 늘면서 전남광주지역 저탄소 농산물 전체 인증면적도 크게 확대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인증면적은 기존 4853ha에 신규 인증면적 2957ha를 더한 7810ha로 집계됐다. 전국 전체 인증면적 2만1861ha의 36%에 해당하는 규모로, 누적 인증면적 역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주특별시는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인증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 설명회와 농가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했다.